

<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바다에 가서 큰 고기를 잡아야 할 사람>이 ‘산골짜기에 있는 계곡의 도랑’에 빠져서 송사리만 잡고 만족하며 산다.
2. <지구세상을 누비며 영웅같이 살아야 될 사람>이 ‘자기 주관’에 빠져서 좋아하고 즐기며 살고 있다.
3. <천리만리를 걷고 뛰고 즐기며 살아야 될 사람>이 ‘오리 길’도 못가고 만족해서 자리를 깔고 기뻐하며 ‘자기 주관’에 빠져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.
4. <제 인생의 갈 길을 못 가는 자들>은 때가 지나고 나서야 ‘자기가 온 길’을 쳐다보며 ‘돌이킬 수 없는 후회’를 한다.
5. <전능자 하나님>과 동행하지 않고, <신이 아닌 우상이나 사람과 동행하며 즐기며 산 자들>은 즐긴 만큼 후회들을 한다.
6. <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먹고 마시며 즐긴 자들>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‘영원한 기쁨’과 ‘이상세계’다.
7. 사람은 무엇이든지 <자기>가 좋아서 기뻐하고 즐기면, 그것이 마음에 만족한 것이다.
8. <무엇을 좋아하며 사느냐>가 ‘문제’다. 그러므로 <전능자 하나님>과 함께 ‘영원히 후회 없는 선택’을 하고 행하여라.
9. <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>을 선택하고, 좋아하고 즐기

고 기뻐하며 살아라. 그리하면 <육>은 일생 동안, <영>은 영원히
'후회 없이' 살게 된다.

10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>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, 매일 그와 동행
하며 사랑을 받고, 사랑을 드리며 기쁘게 살게 된다.

11. <자기 행위>대로 그에 해당되는 '삶의 길' 이 나고, '답' 도 온
다.

12. <온전한 주의 뜻>대로 살아라.